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철수 현상의 근본 원인】

일본의 한 잡지사와 '동아시아 공동출판'을 함께 진행할 때였다. 당시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격차사회'였다. 1 억이 중산층인 사회를 추구하던 일본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세대 사이의 소득분배 악화가 원인이었다.

(1) 격차사회의 최대 희생양은 젊은이들이다. 단카이 세대(1947 ~ 49 년생)는 자민당 정권과 야합해 자신들의 정년까지 연장해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서비스 노동 현장에서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렸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다. 대학에서는 '신 빈곤층(워킹푸어)'이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지만 정규직 교수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대학 당국은 건물 짓는 데 혈안이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니 (2)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계급)는 당연히 '성적(性的)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계급)'가 된다. 돈이 없으니 연애를 할 수 없고, 어렵게 결혼에 성공해도 육아가 부담스러워 출산을 할 수가 없다.

소위 '스카이'¹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도 대기업의 일자리는 외국 대학의 석박사 출신에게 밀리고, (3)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은 100 대 1 의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어렵게 사범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다시 50 대 1 의 경쟁을 뚫고 겨우 교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20 대의 9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남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다.

몇 차례 경제위기에 놀란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유연화를 가장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그는 길로만 '친서민 중도실용'에서 '공정사회', 다시 '공생발전'으로 해마다 말을 바꾸며 친 서민을 외쳤을 뿐 사실상 상위 1%에 모든 것을 몰아줬다. 그러면서도 (4) 대학생들에게 "상황 탓 하면서 좋은 직장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충고했다. 물론 고용주들의 비인간적 행태도 문제였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를 보내는 만행을 다반사로 저질렀다.

연평균 7% 경제성장, 1 인당 국민소득 4 만 달러, 세계 7 위 경제 대국을 이룬다는 747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인들을 불러다놓고 취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4,5 만 원씩 쥐어주며 희희낙락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인턴이라는 명분으로 휘두르거나 했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젊은

¹ Sky: Seou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한국 3 대 대학교)

中國文化大學 101 學年度碩博士班甄試入學招生考試

系組：韓國語文學系碩士班 日期 100 年 11 月 23 日 節次：第 1 節

科目：韓文作文

세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노가 지난 10 월 26 일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선거에서 안철수의 힘은 대단했다. 이제 정치권은 안철수의 위력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왜 기존 정치권에 등을 돌렸을까. 안철수와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며 청춘들의 생각을 살펴온 '시골의사 박경철'이 펴낸 『자기혁명』(리더스북)에 그 해답이 나온다. "벌써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변방에 불과하다는 자조와 체념에 지배"되고 있으며 "단지 부모의 경제력이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이미 시퍼런 절망의 칼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 사실을 절감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였다.

안철수와 박경철은 지독한 독서가들이다. 안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시간에만도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분노하는 젊은이들을 '공감의 한 줄' 어록으로 위로했다. 말은 꼭 정확한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은 '공감'이라는 토양에서 크게 자란다. 이제 우리 사회는 멘토가 던져주는 한 줄 어록에 목말라한다. 안철수와 박경철은 그런 욕구를 정확하게 읽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 책을 읽지 않아 머리에 똥밖에 들지 않은 그들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성적 1 점 차이로 승자가 되는 쾌감을 평생 느끼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당명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적당히 바꾸는 꼼수로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²에서 20~40 대는 대단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5)50 대 이상은 아직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마저 정치권을 불신할 날이 멀지 않다. 정치권이 아무리 그들에게 아양을 떨더라도 그들에게도 분노하는 자식과 손자, 손녀는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일본에서 자식세대 어려움을 두고 볼 수 없는 노인들이 자민당 54 년 정권까지도 무너트렸다는 것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1) - (5) 韓翻中 (25%)

- (1)
- (2)
- (3)
- (4)
- (5)

(6) 回答題 (5%)

'안철수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어로 간단하게 요점을 쓰세요.

² 2011 년 서울시 시장 보궐 선거(박원순 시장 당선)

中國文化大學 101 學年度碩博士班甄試入學招生考試

系組：韓國語文學系碩士班 日期 100 年 11 月 23 日 節次：第 1 節

科目：韓文作文

2. 다음을 가지고 문장이나 단어를 쓰세요. (20%)

(1) -(아/어) 내다 (보조용언)

문장:

(2) -(아/어) 버리다 (보조용언)

문장:

(3) -감(접미사), -벽(접미사)

단어:

단어:

(4) '냉수 먹고 이 쭈신다'(속담)

인용 문장과 뜻:

(5) -르세라(연결어미)

문장:

3. 읽은 책(소설, 수필, 자서전 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국어로 소개해주세요. (15%)

4. 대학원에 들어오는 목적(학습 계획과 미래 계획)을 써 보세요. (35%)